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안 관련 결의안

(문현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0
----------	------

제안일자 : 2020년 7월 17일

제안자 :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이명원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타 지역으로부터 해운정사에 이진된 삼층석탑이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삼층석탑 반경 도심주거지역의 200m 인근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 됨. 그러나, 해운정사 일원은 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건축행위 규제 시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차질 및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 됨.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운대구가 마련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 없음’ 이라는 행위기준안에 대해 부산시의 원안 반영 고시를 촉구하고자 함.

2. 결의내용

- 가. 대대로 살아 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변함없이 평온하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함
- 나. 이진된 석탑의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에 그 어떤 침해도 있어서는 안 됨.
- 다. 면밀한 검토 끝에 마련한 해운대구의 행위기준안을 부산시는 원안대로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함.

3. 결 의 안 : 따로 붙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안 관련 결의안

- 해운대의 주거지로 대표될 수 있는 신시가지와 센텀시티 그리고 마린 시티 등의 지역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는 현재의 우일시장에서부터 해운정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우1동이, 이 지역의 가장 발전된 주거 중심지였습니다.
- 이곳은 선조부터 형성된 몇몇 성씨의 집성촌이기도 했으며, 따라서 조상의 대를 이어 100년 이상을 한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이렇듯 해운정사 일원은 노후되고 낡은 집들이 많은 대표적 원도심으로, 2007년 우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가 접수돼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러한 도심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타 지역으로부터 삼층석탑이 이 건되어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해운정사 삼층석탑이 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삼층석탑 반경 도심주거지역의 200m 인근 또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7항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의 “역사문화환경”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 해운정사 삼층석탑 인근은 유적지도 사적지도 아니고 석탑의 역사 문화와도 연관이 없는 도심주거지역입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을 보면, 문화재 연혁이나

고문헌, 고지도 등을 기본으로 포함한 문화재 정보와 함께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 등 인문환경, 입지환경, 도시계획의 변경 가능성 및 변경 내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등과 문화재와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사항들을 토대로 행위기준안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석탑은 해운정사 경내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이미 일차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해 문화재 지정 당시, 문화재보호구역 역시 따로이 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경내에 위치한 석탑의 보호에 있어서 주변 장애요소가 뚜렷이 부각되지 않음이고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를 따져보았을 때에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축 제한 행위 없음.’ 이라는 해운대구의 행위기준안은 단연 타당하다 판단되기에 해운대구 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대대로 살아 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변함없이 평온하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하나. 이진된 석탑의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에 그 어떤 침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 부산시는 해운대구가 면밀한 검토 끝에 마련한 행위기준안을 원안대로 적극 반영하라.

2020. 7. 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